

1980년대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는 30일 1980년대 초반 긴박하게 돌아가던 한반도 상황을 담은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관련 문서에는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사과, 김일성 퇴진 후 우리 정부대응 전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北, 5·18 진압 비난에 정부 긴급 대응

1983년 국제규약 가입하며 유엔권리위에 보고서 제출

‘비가입국’ 한국, 제한적 조치 인권위원 개별 접촉... 위만 주장

북한이 1980년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자 정부가 당시 긴급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지난 1983년 10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 1984년 1월

주제내비 한국대표부는 이 보고서가 “80년 광주 사건을 거론하면서 아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했다. 북한은 당시 영문 보고서에서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면서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1980년 8월호 보도를 인용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밖에 한국 정부의 학생 체포와 정치인 가택연속 등을 들며 ‘위원회가 남한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가 같은 해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위원회 제21차 회의에 토의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CCPR 규약

비(非)가입국이던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자력으로 회의에 참가해 발언하거나 문서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인권위원을 개별 접촉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후 대사관과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영국·독일·베네수엘라 등 각국 출신 위원을 접촉했다. 정부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한국 문제를 언급한 것이 ‘보고서는 규약 당사국이 취한 제반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약 내용 및 의사규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1984년 4월 9일 이뤄진 북한 보고서 토의에서 위원장은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북한 측에 주의를 했고, 당시 북한의 주유엔 대사도 한국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첫 과거사 유감 표명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 방일때 일왕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사수정주의 태도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이뤄진 우리 정부의 1984년 국빈 방일 시 일본은 일왕(日王)의 과거사 언급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984년 1월 나카소노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일본 총리의

전년도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무궁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원경 외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별도로 만나 이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9월 초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우리 요구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는 분국 보고 후 3월 17일 “국빈으로 방일을 환영한다”면서 9월6~8일 방문 일정이 좋다고 회답했다. 정부는 ‘무궁화 계획 대일 교섭 지침’에서 일

왕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 “방일의 대전제이며 한일관계 미래상 정립의 전제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감정 등을 감안, 최대한 강한 어조로 반성을 확보해야 방일 자체에 대한 국민의 납득을 구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본은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 일정(1984년 9월6~8일)이 시작되기 전날 일왕의 만찬사 등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히로히토(裕仁) 일왕은 9월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식민 지배의 상징적 존재인 일왕이 우리나라와 관련한 과거사 발언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부, 1984년 김일성 퇴진설에 대책 논의

軍, 김정일 대남 도발 시기 예상도

정부가 지난 1984년 김일성의 ‘연내 퇴진설’이 제기되자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해 5~6월 진행된 김일성의 소련·동유럽 순방이 사실상 ‘고별 방문’ 성격이 짙다고 보고 김정일로의 조기 권력 이양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4년 6월 23일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과장에게 ‘김일성이 머지않

아 주석직에서 은퇴하고 김정일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렸다. 김일성의 직전 방문지였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외무성 고위 관리가 현지의 일본대사관 고위직에게 말한 정보가 그 근거였다. 불가리아 고관은 ‘1985년에는 김정일이 주석이 돼 있을 것이라 한다’고, 루마니아 고관은 ‘이번 소련·동구 방문은 김(일성)이 머지않아 은퇴, 김정일에게 뒤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은 보고했다. 정부는 김일성 자신이 불가리아·루마니아 방문에서 ‘조기 은퇴설’을 표명했다고 보고 퇴입

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軍) 내부에서는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일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구체적 시기를 예상하기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1984년 7월10일 작성한 ‘김정일 권력승계에 따른 대남도발 위험성 판단 및 대비책’ 문건에서 “88년 한미 대통령 선거, 1988년 올림픽 개최 및 북한군 훈련 양상 등의 면에서 88년 4월이 가장 취약하다”고 기술했다. 김정일은 실제로 후계자 지위를 대외에 공식화한 1980년 10월 이후 막후 통치자로 군림했으며 김정일성은 상징적 존재로 점차 실권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기 이전까지 김정일로의 공식적 정권 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란 핵 협상 합의 임박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이 스위스 로잔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는 이란 핵협상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진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에니스트 모니츠 미국 에너지장관(오른쪽 두번째),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맨 오른쪽) 등이 28일 로잔의 회담장에 앉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獨 여객기 고의 추락 부기장 시신 수습

사망자 78명 DNA 확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 추락시켜 탑승자 150명 전원을 사망케 한 것으로 지목된 부기장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의학 조사를 이끄는 미하엘 초코스 교수는 독일 대중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탑승자들의 시신 일부를 포함해 600점을 수습했다면서 부기장 안드레아 루비츠의 시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의학팀은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일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희생자 78명의 유전자(DNA)를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부기장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 추락시킨 것으로 지목된 루비츠 부기장이 기장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중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빌트 일요판이 공개한 1시간30분 분량의 사고기 블랙박스 음성녹음기록을 보면 파트리크 존더하이머 기장이 조종실에서 이륙 전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었다고 불평하자 루비츠 부기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권한다. 여객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해 기장이 작류계획을 설명하자 부기장이 ‘그거기를요’(hopefully), ‘두 고봐야죠’(We'll see)라며 불길하게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설명이 끝나자 부기장은 기장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재차 권했고 기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여객기는 급하강을 시작했다. 이후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열고 고함치는 소리와 승객들의 비명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추락 직전까지 “빌어먹을 문 열어!”라는 기장의 질박한 고함이 녹음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음성녹음장치에는 또 승객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기장이 기내에 비치된 손도끼로 조종실 문을 내리치는 소리도 이어져 들었다. 한편, 블랙박스 음성녹음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 유럽조종사협회(ECA)는 국제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조종사협회(GAPA)도 사고기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FDR)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락 경위는 모든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아베 “위안부 ‘인신매매’ 표현 사실” 내달 29일 美 의회 연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고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이라고 인터뷰에서 표현한 데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표현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리관유(李光耀) 싱가포르 초대총리 국장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29일 단시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600g 120,000원
생물 절편 300g 40,000원	한 1kg 360,000원
600g 80,000원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